

야 하지 않을까?”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는 ‘규제자’에서, 사전에 위험을 알려주는 ‘가이드’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는 그렇게 기획되었습니다.

제1막: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 모인 기업들

2025년 10월 31일,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평소 투자 설명회(IR)가 열리던 이곳이 오늘은 세금 공부를 하러 온 기업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여 명의 법인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의 핵심은 철저한 ‘실무’였습니다. 법인조사팀장과 실무 주무관들이 직접 강단에 섰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적인 이론 대신, 그동안 세무조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던 추징 사례들을 가감 없이 공유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됩니다. 이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분 변동이 일어날 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본세의 20%입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바쁘게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 리스크가 구체적인 관리 항목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